수확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적다 그러니 수확할 밭의 주인님께 일꾼들을 보내 주십사고 청하여라

| 콜롬비아 |

안녕하십니까? 저는 작년 7월부터 콜롬비아 보고타에서 선교사로 살고 있는 양호 바오로 신부입니다. 콜롬비아에 오기 전에는 페루에서 5년 동안 사목하였습니다. 2018년 현재 아메리카 대륙을 기준으로, 미국 알래스카에서 시작하여 미국-멕시코 국경지역, 과테말라, 콜롬비아, 페루, 칠레에 이르기까지 6개 나라에 걸쳐 8명의 신부님들이 사목하고 계십니다. 콜롬비아는 지정학적으로 남미가 시작되는 첫 번째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미국이나 유럽, 남미의 다른 나라들에서 방문하는 것이 용이합니다. 중남미 카리브 주교회의(CELAM: Consejo Episcopal Latinoamericano) 본부가 보고타에 있는 이유도 그와 연관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교황청립 대학에서 운영하는 교육 기관들이 있기에 향후에는 중남미 신학을 바탕으로 한 선교 사목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페루에서 임기를 마칠 무렵 선교 사제들을 위한, 선교를 꿈꾸는 서울의 신부님들과 '쁘락티꿈(사목실습을 위한 프로그램)'을 하는 신학생들을 위한 선교 센터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부터 본격적으로 선교 센터 마련을 위해 매진하였고 이제 그 결실을 맺었습니다. 현재 콜롬비아에는 세 분의 한국 신부님과 다섯 분의 한국 수녀님들이 선교사로 살고 계십니다. 아직 많은 한국인 선교사들이 활동하고 있지는 않지만, 저마다의 어려움을 극복해나가며 콜롬비아 교회와 교우들을 위해 열심히 살아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또한 950여 분의 한국 교민들이 지상사 주재원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20여 분의 신자들이 주일에 모여 함께 미사를 드리고 있으며, 쉬는 교우들을 찾아 신앙생활을 잘하시도록 도움을 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콜롬비아 교회 또한 성소자 감소와 사제 고령화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다른 남미 교회에 비해 인구 대비 가톨릭 신자 비율이 높은 편입니다. 콜롬비아에서 지내며 인상 깊은 것은, 모든 본당들에 성체조배실을 설치하여 교우분들이 성체조배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는 것입니다. 성체 앞에 조용히 앉아 기도하는 신자 분들의 모습을 통해 저 또한 성체 안에 현존하시는 예수님께 겸손의 덕을 청합니다. 또한 에콰도르의 작은 형제회 신부님으로 시작됐다고 전해지는 '성탄 전 9일 기도'가 인상적입니다. 저녁시간에 가족과 친척 또는 친구들과 모여 9일 기도를 드리고, 성탄이 가까운 날에는 각자 준비한 성탄 선물들을 나누어주는 모습에서, 예루살렘 성가정의 사랑과 일치 그리고 평화로운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연말이면 여러 모임으로 바쁘게 지낼 서울에 있는 교우 분들이 생각납니다. 잠시라도 온 가족이 모여 아기 예수님의 성탄을 준비하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남미 교회에서 선교의 장점은 가톨릭교회 문화 안에서의 삶이라 생각됩니다. 멀리 한국에서 온 사제, 생김새도 다르고 언어도 서툰 우리들을 사제라는 이유로 좋아해 주시는 교우 분들의 모습이, 오늘 하루도 이곳 콜롬비아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우리 교구의 콜롬비아 선교 역사는 이제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보편교회의 일치 안에서 선교센터가 자리를 잘 잡고, 한국 교회와 콜롬비아 교회가 서로 간의 이웃이 되어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국에 계신 교우 분들의 많은 기도와 격려 부탁드립니다. 또한 선후배 신부님들의 응답도 기다려 봅니다.

양호 바오로 신부 | 콜롬비아 선교

서울대교구 해외선교후원회
(담당 송영호 안토니오 신부)

- **후원 문의:** 727-2407, 2409 | **후원 계좌:** 우리은행 454-035571-13-101 (재)천주교서울대교구
- **후원회 특강 및 월례미사:** 2019년 1월3일(목) 14시, 가톨릭회관 1층 강당(해외선교봉사국장 신부)